

이 보고서는 코스닥 기업에 대한 투자정보 확충을 위해 발간한 보고서입니다.

기술분석보고서

 YouTube 요약 영상 보러가기

에스트라픽(2343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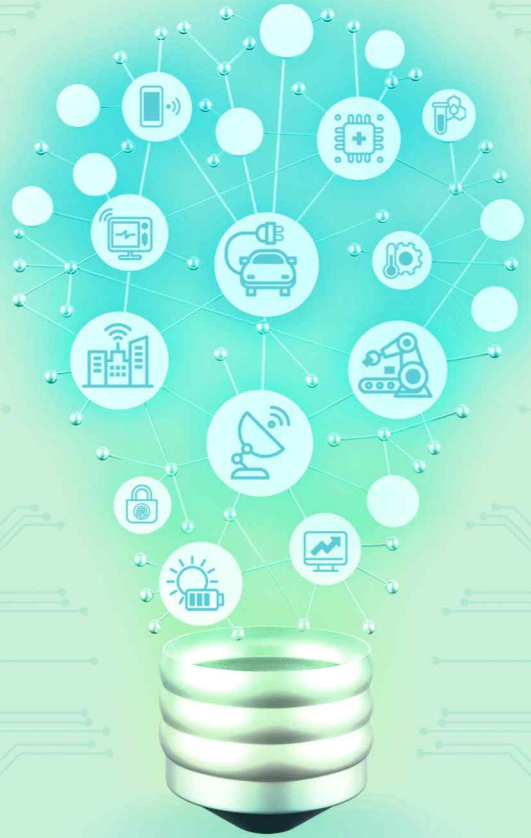
소프트웨어

요약

기업현황

재무분석

주요 변동사항 및 전망



작성기관	(주)NICE디앤비	작성자	백하영 연구원
------	------------	-----	---------

- 본 보고서는 「코스닥 시장 활성화를 통한 자본시장 혁신방안」의 일환으로 코스닥 기업에 대한 투자정보 확충을 위해,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의 후원을 받아 한국IR협의회가 기술신용평가기관에 발주하여 작성한 것입니다.
- 본 보고서는 투자 의사결정을 위한 참고용으로만 제공되는 것이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종목선택이나 투자시기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보고서를 활용한 어떠한 의사결정에 대해서도 본회와 작성기관은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본 보고서는 '18.11.01에 발간된 동 기업의 기술분석보고서에 대한 연계보고서입니다.
- 본 보고서의 요약영상은 유튜브로도 시청 가능하며, 영상편집 일정에 따라 현재 시점에서 미게재 상태일 수 있습니다.
- 카카오톡에서 “한국IR협의회” 채널을 추가하시면 매주 보고서 발간 소식을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본 보고서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작성기관(TEL.02-2122-1300)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에스트라픽(234300)

기존 사업과 신사업인 전기차 충전 인프라 사업의 동반 성장

기업정보(2022/01/24 기준)

대표자	문찬중
설립일자	2013년 01월 25일
상장일자	2017년 12월 05일
기업규모	중소기업
업종분류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주요제품	요금징수 시스템, ITS, LTE-R, 전기차 충전 플랫폼

시세정보(2022/01/24 기준)

현재가	4,205원
액면가	500원
시가총액	1,091억 원
발행주식수	25,948,862주
52주 최고가	9,022원
52주 최저가	4,187원
외국인지분율	1.27%
주요주주	
문찬중 외 2인	18.43%
자사주	1.54%

■ 교통 인프라 시장 선도 기업

에스트라픽(이하 동사)은 2013년 1월 설립되어 도로·철도 교통 관련 SI를 주요 사업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2017년 12월 코스닥 시장에 상장하였다. 동사는 삼성 SDS에서 쌓아온 기술을 기반으로 요금징수 시스템, 지능형 교통 시스템, 철도신호와 이를 연결하는 철도통신을 제공해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다.

■ 도로·철도 교통 SI 부문 사업 다각화로 경쟁력 강화

동사는 2017년 서울신교통카드를 설립하여 교통카드 시스템 사업으로 진출하였으며, 2018년 전담팀 구성으로 시작한 공항 ICT 사업은 2021년 인천 공항으로부터 4개의 수주를 확보하며 사업을 본격화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5G 자율협력주행 사업에 참여하며 차세대 ITS인 C-ITS로 변화하는 도로 교통 시스템에 대응하고 있다. 철도교통 부문에서는 철도 무선통신 시스템인 LTE-R 기술을 활용해 휴대용 복합단말기를 개발하여 국가재난안전 통신망 구축사업으로 확장하였다. 동사는 지속해서 신사업을 발굴하여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있다.

■ 전기차 급속 충전기 민간부문 시장 점유율 1위 기록

동사는 2017년 전기차 충전 사업을 시작하였으며, 2021년 민간 사업자 중 급속 충전기 부문의 시장 점유율 1위를 달성하였다. 동사는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이마트, BGF리테일, 현대자동차 그룹과 협약해 사업 규모를 확대하고 있으며, 2021년부터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SSCharger(전기차 충전 플랫폼) 멤버십 전용 앱 'EVRO'와 구독형 충전 상품 '럭키패스'로 이용자 편의를 도모하여 시장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 동사의 교통 시스템 사업은 B2B, B2G에 집중된 구조였지만, 전기차 충전 사업으로 B2C 거래로 확장하며 기존 사업의 정부 및 지자체 정책에 대한 의존도를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요약 투자지표 (K-IFRS 연결 기준)

구분 년	매출액 (억 원)	증감 (%)	영업이익 (억 원)	이익률 (%)	순이익 (억 원)	이익률 (%)	ROE (%)	ROA (%)	부채비율 (%)	EPS (원)	BPS (원)	PER (배)	PBR (배)
2018	406.8	-47.4	-87.6	-21.5	-90.1	-22.2	-21.4	-8.7	148.8	-556	2,492	N/A	3.1
2019	796.7	95.9	-25.2	-3.2	-93.7	-11.8	-26.3	-8.4	285.8	-578	1,906	N/A	2.6
2020	921.3	15.6	-31.5	-3.4	-211.8	-23.0	-71.1	-18.4	235.0	-1,260	1,362	N/A	3.4

기업경쟁력

다년간 축적된 교통 IT 기술력 보유

- 삼성 SDS에서 축적한 교통 IT 기술력을 바탕으로 다양한 교통 솔루션 및 인프라를 제공
- 국내에서 검증된 도로·교통 솔루션으로 글로벌 진출
- 인천공항 수주 확보로 공항 ICT 시스템 사업 본격화

정부 정책을 뒷받침할 교통 솔루션

- LTE-R 기술을 활용한 국가재난안전 통신망 사업 진출
- 5G 자율주행 등 미래 교통혁신기반 서울 C-ITS 사업
- 전기차 충전 인프라 사업으로 미래 성장 동력 확보
- 국내 최초 구독형 전기차 충전 상품 럭키페스 출시

핵심기술 및 적용제품

주요 사업 분야 및 핵심기술

- 도로·철도 교통 SI
 - 스마트톨링: 차세대 요금징수 시스템(미정차)
 - C-ITS: 협력 지능형 교통 체계
 - LTE-R: LTE 기반 철도 무선 통신 시스템
 - VPSD: 상하 개폐형 스크린도어
- 전기차 충전 플랫폼 SSCharger
 - 충전 인프라 원격 관제 시스템 운영
 - 번호판 인식 기술로 충전 프로세스 간소화
 - EVRO: 멤버십 전용 모바일 앱
 - 럭키페스: 구독형 충전 상품

주요제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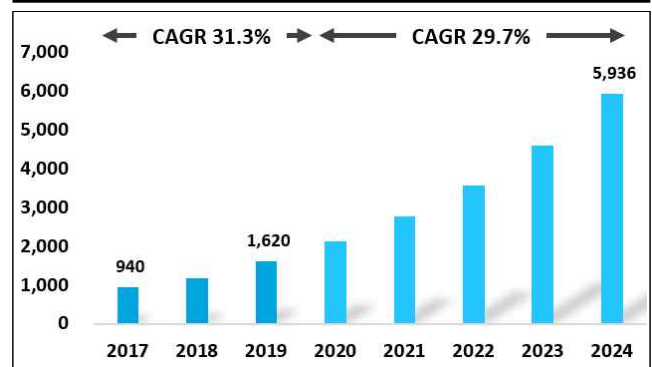


시장경쟁력

국내 전기차 충전기 시장

- 전기차 보급 확대에 따른 지속적인 성장 추세
- 환경부 충전 인프라 보급, 산업통상자원부 충전 표준화 정책 등 정부가 주도적으로 시장확대 도모
- 2021년 9월 기준 전국 전기차 충전기 76,715대 구축
- 완속 충전기 대비 급속 충전기의 낮은 보급률

년도	시장규모	CAGR
2019년	1,620억 원	29.7%▲
2024년(E)	5,936억 원	



ESG(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 활동 현황

E

(환경경영)

- 당사는 ISO14001(환경경영시스템)을 바탕으로 환경경영을 펼치고 있음.
- 당사는 전기차 충전 인프라 사업을 추진하여 탄소제로를 실천하며, 제품 및 서비스의 개발, 생산, 폐기 과정에 환경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고 환경 관련 법상의 행정적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음.

S

(사회책임경영)

- 당사의 임직원은 안전보건을 위해 매년 산업안전 교육에 참여하고 있음.
- 당사는 통신비 지원, 여가활동 지원, 의료비 지원 등의 복리후생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당사의 남성대비 여성 근로자의 임금 수준은 동 산업(J) 이상임.

G

(기업지배구조)

- 당사는 윤리경영을 위해 개인정보 정책과 정보보안 정책을 시행하고 있음.
- 당사는 회계 전문성을 보유한 상근 감사를 선임하고 감사지원 조직을 구성함.
- 당사는 전자 투표제를 도입하였으며, 주주환원 정책으로 무상증자를 시행한 바 있음.

* NICE디앤비의 ESG 평가항목 중, 기업의 ESG 수준을 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항목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활동 현황을 구성

I. 기업현황

도로·철도 교통 SI 부문 사업 다각화와 전기차 충전 인프라 시장 점유율 확대

동사는 삼성 SDS에서 스핀오프한 기업으로, 교통관리 제어시스템의 개발 및 운용 서비스 기술을 기반으로 스마트톨링, C-ITS, 공항 정보시스템 등의 교통 관련 SI 사업을 주력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으며, 전기차 충전 인프라 사업에 진출하며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였다.

■ 기업 개요

동사는 2013년 1월 설립되어 경기도 성남시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2017년 12월 코스닥 시장에 상장하였다. 동사는 삼성 SDS 교통사업 부문이 분사되어 설립된 기업으로, 교통(도로, 철도) 관련 정보 시스템의 계획부터 설계, 개발, 구축, 운영까지의 서비스를 일괄적으로 제공하는 SI(System Integration)를 통해 국내외 교통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다.

동사는 2013년 공인기업연구소를 설립하고 삼성 SDS에서 분사되며 양도받은 핵심기술과 특허권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연구개발 활동을 이어가고 있으며, 2017년 전기차 충전 시장에 진출하며 사업 영역을 넓혔다.

동사는 계열회사로 경기도 성남시에 에스티전기통신(주), 서울신교통카드(주)와 미국, 인도에 해외 비상장 법인을 운영하고 있다. 에스티전기통신(주)는 무선통신방송 및 응용장치 제조 및 설치 서비스를, 서울신교통카드(주)는 스마트카드 기반의 교통카드시스템 운영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으며 미국 버지니아주에 위치한 STRAFFIC AMERICA, LLC는 자동요금징수 시스템 구축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나 그 외 인도 비상장 법인(STRAFFIC INDIA PRIVATE LIMITED)은 현재 별도의 영업활동을 수행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그림 1] 동사의 계열회사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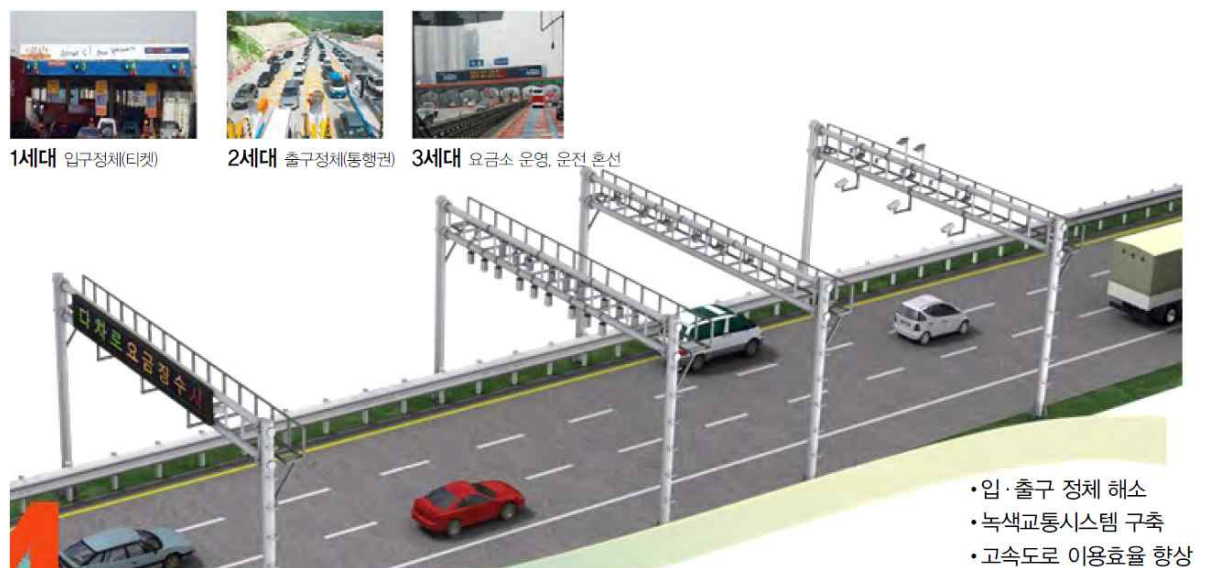
*출처: 동사 IR자료(2021.12)

■ 동사의 주요 사업

동사의 사업은 크게 도로교통과 철도교통, 신규사업 부문으로 나뉜다. 도로교통 사업은 수동형 요금수납 시스템(TCS) 및 하이패스(ETCS) 등의 요금징수 시스템과 교통신호 제어와 실시간 교통정보 수집 등을 포함하는 지능형 교통시스템(ITS: Intelligent Transport System) 그리고 전기차 충전 인프라로 구성된다.

동사는 기존 TCS, ETCS 방법에서 발전한 차세대 요금수납 형태인 스마트톨링을 개발하여 천안-논산, 신대구-부산 고속도로에 구축한 실적을 보유하고 있다. 스마트톨링은 영상인식과 무선통신 기술을 활용하여 통행료를 자동 결제하는 무인 자동 정산 시스템이다. 스마트톨링은 기존 방식과 달리 요금 결제를 위한 전용 단말이나 수동형 요금수납이 필요없고, 최대 시속 160km까지 번호판 인식이 가능하여 요금 결제를 위한 차선변경과 주행 속도 감속이 크지 않아 톨게이트 입출구 정체를 해소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그림 2] 동사의 차세대 요금징수 시스템 스마트톨링



*출처: 동사 IR자료(2021.12)

도로교통 사업에 속하는 ITS는 교통수단 및 교통시설에 정보통신 기술을 접목하여 교통체계를 자동화하는 교통관리 시스템으로, 버스·교량·터널의 정보 관리시스템과 요금수납 시스템, 차량검지 시스템, CCTV 등을 통합 관리하여 교통의 효율성을 향상하고 이용자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한다. 관련되어 동사는 2020년 서울 제물포터널 ITS 사업을 수주받아 2021년 구축 완료하였다. 서울 제물포터널은 민자사업 최초로 무인 스마트톨링 시스템이 적용된 사업으로, 동사는 스마트톨링, CCTV, 차량검지시스템(VDS), 광통신 등 센터, 현장, 통신을 포괄하는 통합 교통 시스템을 단독으로 수주, 구축하여 교통 시스템 구축 역량을 인정받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동사는 이번 구축 사례를 토대로 정부사업에 의존하던 교통 SI 사업을, 민자사업으로의 확장할 수 있게 되었다.

한편, 동사는 정보의 수집과 관리 중심의 접근방식의 ITS에서 차량과 차량, 차량과 도로가 정보를 공유하는 C-ITS(Cooperative ITS)를 통해 변화하는 미래의 도로교통 시스템을 준비하고 있다. C-ITS는 V2X(Vehicle to Everything) 통신을 기반으로 실시간 자료를 수집하여 이용자에게 필요한 교통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으로, 동사는 5G 자율협력주행 등 미래 교통혁신기반 조성을 위한 서울 C-ITS 실증사업에 참여하여 통신망과 신호제어 시스템, CCTV 및 딥러닝 검지기 등을 공급하고 있다.

[그림 3] 동사의 서울시 차세대 지능형 교통시스템(C-ITS) 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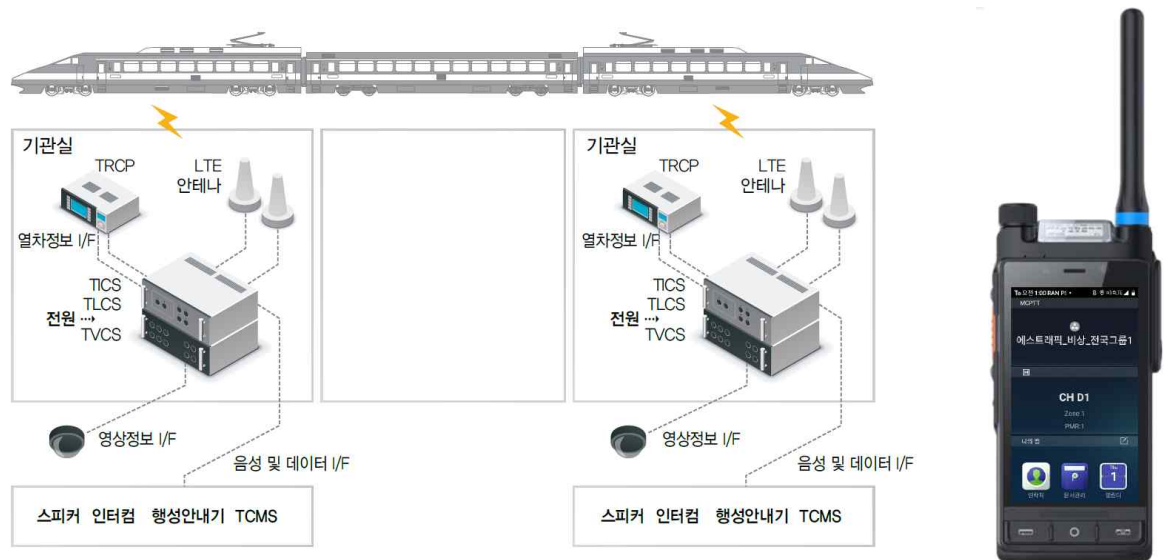


*출처: 동사 IR자료(2021.12)

동사의 철도교통 사업은 열차운행을 관리하는 철도신호와 이를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유무선 통신망인 철도통신 부문으로 구성된다. 철도신호는 열차 사고를 방지하고 안전한 운행을 위해, 열차의 선로제어 및 열차의 간격을 제어하는 열차자동방호장치(ATP), 열차자동제어장치(ATC), 통신기반열차제어시스템(CBTC) 등의 시스템 솔루션과 열차운행을 종합적으로 통제하는 관리시스템을 포함하고 있다.

동사는 철도통신 네트워크, 설비, 시스템을 다년간 공급해온 기술력을 바탕으로 차세대 철도 무선통합망(LTE-R: Long Term Evolution for Rail)을 구축하였다. 분산된 철도 무선망을 LTE 기반의 기술을 이용하여 통합하고 열차인터페이스장치(TICS), 열차영상처리장치(TVCS), 차량조작반(TRCP) 등을 통해 철도운행에 필요한 솔루션을 제공한다. 뿐만 아니라 LTE-R 기술을 바탕으로 LTE 통신망 두절 시에도 음성통화가 가능한 휴대용 복합단말기를 개발하여 국가재난안전 통신망 사업에 진출하며, 도로교통 사업에 이어 철도교통 부문에서도 시장 확장을 도모하고 있다.

[그림 4] 동사의 LTE-R 차상설비(좌) / 국가재난안전망 복합 단말기(우)



*출처: 동사 IR자료(2021.12)

동사는 신규사업으로, 2017년 종속회사인 서울신교통카드를 설립하여 대중교통 교통요금 지불 사업을 시작하였다. ‘서울시 도시철도 운영기관 교통카드시스템 구축사업’을 통해 서울 지하철 1~8호선 276개 역사와 2개의 센터에 교통카드 시스템을 구축하고 교통카드 운송 수입금의 일부를 매출로 확보하였다. 동사는 이에 그치지 않고, 향후 역사 입·출입 정보를 활용한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교통 수요 예측 사업과 RF 단말기를 활용한 광고 등의 신규사업을 통해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있다.

VPSD(Vertical Platform Screen Door)는 하나의 플랫폼에 대기중 열차차량의 운영으로 열차 정차 지점이 상이하여 제 위치에 정차가 어려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개발된 상하 개폐형 스크린도어이다. 이를 통해 승객의 안전을 제고하며 광고를 이용한 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하다. 동사는 유럽 및 개발도상국 시장을 타겟으로 VPSP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프랑스 파리, 스페인 바르셀로나에 시범사업을 완료하며 글로벌 시장 진출의 발판을 마련하였다.

동사의 다른 신규사업으로 공항사업이 있다. 공항운업을 위한 공항 인프라의 정보시스템(공항 ICT) 개발, 구축, 운영, 유지보수를 수행하는 것으로, 2018년 전담팀을 구성하고 2021년 인천공항 수주를 확보하며 사업을 본격화하였다. 공항사업은 그 특성상 실적이 없으면 수주를 받기 어려워 동사는 3년간 작은 규모의 사업을 진행하며 실적을 쌓았으며, 그 결과 인천공항 정보통신 분야에서 4개의 수주를 따내는 쾌거를 이루었다. 동사는 공항운영과 통신 및 보안 부문을 메인으로 진행하며, 인천공항의 인프라 설비 구축을 레퍼런스로 향후 해외공장의 수주를 목표로 사업을 키워나갈 예정이다.

■ 전기차 충전 플랫폼 SSCharger(SSC)

동사는 2017년 전기차 충전 인프라 사업을 런칭하였다. 이후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경기도 전기차 충전 사업자로 선정되며 사업을 확장하였으며 이마트, BGF리테일, 현대자동차 그룹과 협약하며 시장 점유율을 확대해나갔다. 전기차 충전기는 충전속도에 따라 급속 충전기와 완속 충전기로 구분되며 완속 충전기는 OBC(On-Board Charger, 전력변환장치)가 차량 내부에 존재하여 AC 220V 전원을 DC로 변환 후 배터리에 공급하는 반면, 급속 충전기는 OBC를 거치지 않고 50kW 이상의 전력 DC 전원을 배터리에 직접 공급하여 빠른 충전이 가능하다.

[표 1] 충전 속도에 따른 충전기 분류

구분	급속 충전기	완속 충전기
공급용량	50kW 이상	3~7kW
충전시간	30분 이내	6~8시간
커넥터 규격	DC 콤보, 차데모, AC 3상(7핀)	AC 단상(5핀)
전력변환 장치	외부 충전기 탑재	차량 내 탑재
설치장소	경유지(휴게소, 주유소), 상업시설	주택, 회사, 공공장소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기술로드맵(2021)

급속 충전기는 짧은 체류 시간을 가지는 상업시설이나 주유소, 휴게소 등에 주로 설치되며 완속 충전기는 회사나 주거시설에 설치된다. 동사의 분기보고서(2021.09)에 의하면, 동사는 완속 1,545대, 급속 393대, 초급속 337대를 설치하며 총 2,275대의 전기차 충전기를 구축한 것으로 확인된다. 특히, 회전율이 높아 수익성이 좋은 급속 충전기를 서울, 경기 위주의 이마트, CU, 주차시설 등에 설치하여, 사업 진출 4년 만에 환경부 로밍 데이터(2021년 1월) 기준으로 민간사업자 중 급속 충전기 시장 점유율 1위를 달성하는 성과를 이루었다.

[표 2] 동사의 전기차 충전소 설치 사례







*출처: 동사 홈페이지(2021)

동사의 전기차 충전 인프라인 SSC는 원격 관제 시스템을 운영하여 장애 발생 시 빠른 시간 내 시스템을 복구하며, 번호판 인식 시스템을 통해 별도의 인증과정 없이 차량과 충전기 연결만으로 이용 가능해 충전 프로세스를 간소화하였다. 또한, SSC 멤버십 전용 앱인 'EVRO'로 충전기 위치, 예약,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충전 금액의 일부를 포인트로 적립하는 할인 혜택 및 세차 제휴 상품을 비롯한 다양한 부가기능을 통해 이용자 편의성을 제고하고 있다.

동사는 국내 최초로 구독형 충전 상품인 ‘럭키패스’를 2021년 9월 시장에 선보이며 새로운 수익 모델을 발굴하였다. 이용자는 특성에 따라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으며, 월 구독료를 지불하고 SSC 급속충전 요금을 50%, 한국전력 급속충전 요금을 20%를 상시 할인받을 수 있다. 동사는 럭키패스, EVRO로 편리한 충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조선일보가 주관한 소비자가 선택한 2021 최고의 브랜드(전기차 충전 서비스)에 선정되며 시장경쟁력을 입증하였다.

[표 3] 동사의 SSC, EVRO 앱, 럭키패스

SSC, EVRO			럭키패스
 Smart & Seamless EV Life	 가져있는 모바일 전기차 충전 서비스	 제휴사 카드 발급	 예약가능 충전소 찾기
			 럭키패스 구독안내 럭키패스란 배스패스차저 충전 요금을 반값으로 이용할 수 있는 구독 서비스입니다. GREEN 월 29,900원 월간 최대 할인액 155,560원 혜택 월 최대 1,200kWh 충전가능 LITE 월 11,900원 월간 최대 할인액 3A,465원 혜택 월 최대 300kWh 충전가능 SSCCharger

*출처: 동사 IR자료, 홈페이지(2021)

동사의 전기차 충전 플랫폼 시장 진출은, 기존 B2B, B2G 형태의 거래에서 B2C로 확대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기존의 도로, 철도 교통 산업은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투자계획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아 정부와 지자체 정책에 대한 의존도가 높으나, 동사의 SSC를 통해 B2C로 사업 영역을 확장함에 따라 국내 정책에 대한 의존도를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 예상된다.

[표 4] 동사의 사업 부문

구분		설명
도로교통	요금징수 시스템	<ul style="list-style-type: none"> TCS(Toll Collection System): 수동형 요금징수 시스템 ETCS(Electronic TCS): 무인 요금징수 시스템(하이패스) 스마트톨링(Smart Tolling): 차세대 요금징수 시스템(미정차 요금수납)
	지능형 교통시스템(ITS)	<ul style="list-style-type: none"> FTMS(Freeway Traffic Management System): 고속도로 교통관리 시스템 UTMS(Urban Traffic Management System): 도시부 교통관리 시스템 ATMS(Advanced Traffic Management System): 국도 교통관리 시스템 C-ITS(Cooperative-ITS): 차세대 ITS(협력 지능형 교통 체계)
	전기차 충전 인프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SSCharger: 전기차 충전 통합 관제 플랫폼 럭키패스: 구독형 전기차 충전 상품 EVRO: SSC 멤버십 전용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철도교통	철도신호	열차제어시스템(Train Control System): 열차 간격 및 선로제어 시스템
	철도통신	<ul style="list-style-type: none"> Train Communication System: 철도통신 네트워크, 설비 및 시스템 LTE-R: LTE 기반 차세대 철도 무선통신 시스템
신규	교통카드	RF 카드리더기, 발권기, 발매기 등을 포함하는 교통카드 시스템
	VSPD	VPSD(Vertical Platform Screen Door): 상하 개폐형 스크린도어
	공항	Airport Total ICT System: 공항운영, 통신, 시설관리 등의 시스템

*출처: 동사 분기보고서(2021.09), NICE디앤비 재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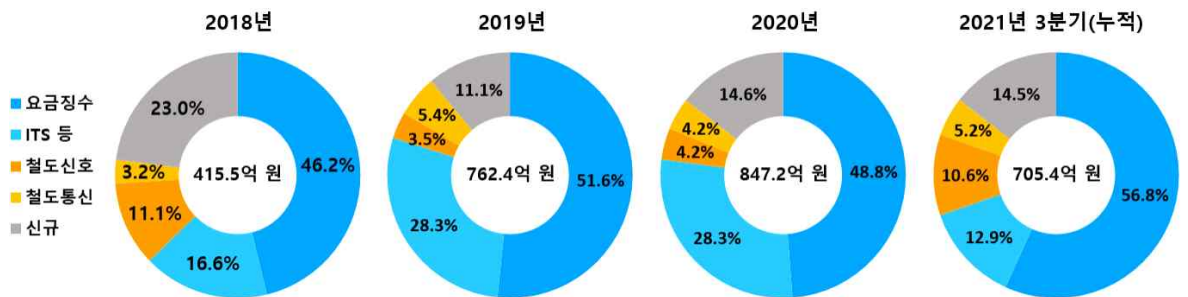
■ 동사의 사업별 매출 현황 및 고객사

동사의 별도기준 매출액은 2018년 415.5억 원, 2019년 762.4억 원, 2020년 847.2억 원을 기록하며 증가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 구체적인 사업 부문의 비중은 철도교통(철도통신, 철도 신호)이 2018년 전체 매출 중 14.3%를 차지하였으나, 2019년 8.9%, 2020년 8.4%로 비중이 줄어들고 있으며 도로교통(요금징수, ITS 등) 부문의 비중은 최근 3년 평균 73.3%를 나타내고 있다. 동사의 요금징수 시스템은 동사의 매출실적에 가장 크게 기여하는 사업 부문으로, 2020년 전체 매출의 48.8%를 차지하였다.

동사는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 서울춘천 고속도로, 부산교통공사, 서울특별시, 대구광역시 등의 공공기관과 지자체 중심의 고객사를 두고 있다. 주로 B2B(Business to Business), B2G(Business to Government)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확인되며, 그 특성상 복수의 기업이 컨소시엄 형태를 이루어 사업이 진행되기도 한다.

[그림 5] 동사의 사업별 매출 비중

(단위: 억 원, %, K-IFRS 별도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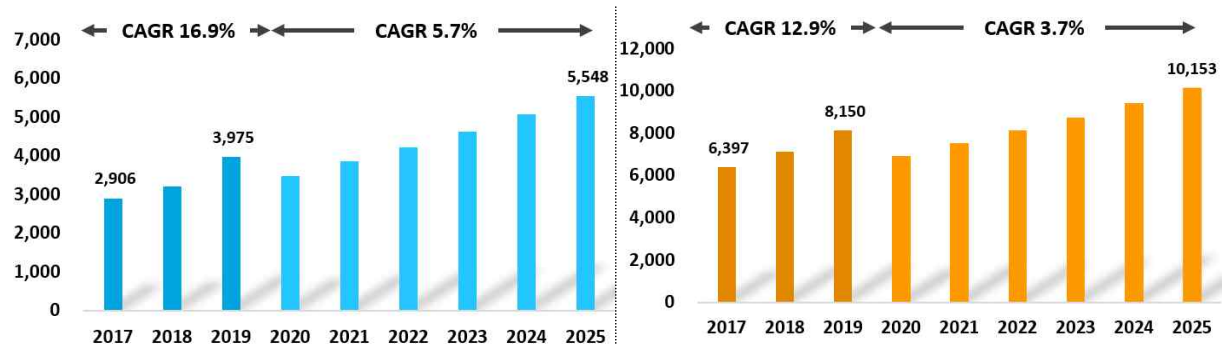


*출처: 동사 사업보고서(2020.12), 동사 분기보고서(2021.09), NICE디앤비 재구성

■ 정부 주도하에, 장기적인 계획으로 성장이 이루어지는 교통 인프라 시장

MarketsandMarkets의 시장조사(2020)에 의하면 국내 자동요금징수 시스템 시장은 2017년 2,906억 원에서 연평균 16.9% 성장하여 2019년 3,975억 원의 규모를 형성하고, 이후 연평균 5.7%의 성장률로 증가하여 2025년에는 5,548억 원의 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세계 시장은, 2017년 6,397백만 달러에서 연평균 12.9%로 성장하여 2019년 8,150백만 달러의 시장규모를 형성하였으며, 이후 2025년까지 연평균 3.7%로 성장하여 10,153백만 달러의 시장규모를 형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 6] 국내 자동요금징수시스템 시장규모/세계 자동요금징수시스템 시장규모 (단위: 년, 억 원, 백만 달러)



*출처: Electronic Toll Collection, MarketsandMarkets(2020), NICE디앤비 재구성

자동요금징수 시스템은 정부의 개발 계획이나 정책에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단기적인 경기변동보다 장기적인 인프라 구축 계획에 의해 수요가 발생한다는 특징이 있다. 때문에, 정부 주도하에 수동적 수요에 의존하고 있으며, 사업 특성상 정부 부처의 감사를 받아 입찰 방식으로 사업이 이루어지므로, 입찰 참여를 위해 기업의 사업 수행 능력이 시장진입에 장벽으로 존재한다. 최근, 정부에서는 C-ITS 조성 확대를 위해 기술 및 서비스의 개발, 인프라 구축 등의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국토부의 ‘지능형 교통체계 기본계획 2030’ 착수를 시작함에 따라 본격적인 시장의 성장이 예상된다.

■ 전기차 보급 확대에 의한 충전소 시장의 지속적인 성장 전망

한국전력거래소 전기차 및 충전기 보급·이용 현황 분석(2021)에 의하면, 전기차 등록 대수는 2021년 9월 기준 20만대를 넘어선 것으로 확인된다. 이는 엄격해지는 배기규제와 정부의 구매 보조금, 세금 감면 등의 친환경차 보급 확대 정책에 힘입어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관련 산업인 전기차 충전 인프라 시장도 함께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Alired Market Reseach의 시장조사(2020)에 의하면 국내 전기차 충전기 시장은 2017년 940억 원에서 2019년 1,620억 원으로 연평균 31.3%로 성장하였으며, 이후 연평균 29.7%의 성장률로 증가하여 2024년에는 5,936억 원의 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세계 시장의 경우, 2017년 2,355백만 달러에서 2024년까지 연평균 27.1%로 성장하여 12,589백만 달러의 시장규모를 형성할 것으로 전망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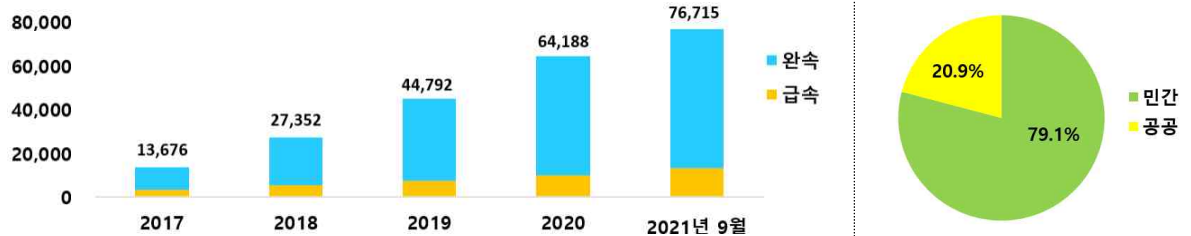


*출처: Electric Vehicle Charger(EVC) Market, Alired Market Research(2020), NICE디앤비 재구성

전기차 충전기 산업은 전기차 보급에 필수적인 산업으로, 인버터 컨버터와 같은 전력변환 장치와 전력 반도체와 같은 부품 산업과 인프라 유지보수 산업, 전력 수요관리 등의 전후방 산업의 연관 관계가 크다. 전기차 충전 인프라의 기본적인 구조는 단일 충전소보다는, 복수의 충전소들이 상호적으로 연결된 일종의 네트워크 산업의 성격을 가진다. 이러한 인프라 생태계를 구성하는 이해관계자로는 충전소를 구축하고 충전설비를 관리하는 충전 서비스 운영자와 충전소를 소유하지 않고 고객 대상으로 네트워크를 운영하는 E-mobility 서비스 제공자, 전력회사 등이 존재한다. 또한, 환경부 충전 인프라 보급정책, 산업통상자원부 충전 인프라 표준화 정책지원 사업 등 정부가 주도적으로 시장확대를 도모하고 있으며, 이는 향후 전기차 충전 시장의 성장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8] 국내 전기차 충전기 보급 현황(누적) / 운영기관별 비중

(단위: 년, 대수, %)



*출처: 국토교통부 통계누리,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한국전력거래소(2021), NICE디앤비 재구성

국내 전기차 충전기는 2021년 9월 기준 76,715대가 설치되었으며 한국전력, 환경부, 지자체 등과 같은 공공 사업자가 20.9%를 차지한다. 전기차 충전소는 2017년 13,676대 대비 5.6배 증가하였으나, 전기차 등록 대수가 동일 기간 8배 이상 증가한 것에 비해 미비한 실정으로, 여전히 충전소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한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급속 충전기의 보급률이 완속 충전기 대비 낮아 인프라 확대가 필요하며, 이에 당사는 급속 충전기 중심으로 충전 인프라 구축을 확대하고 있다.




■ 동사의 경쟁사 분석

동사의 주요 경쟁사는 (주)시티랩스와 대영채비(주)로 각사의 특징은 하기와 같다.

시티랩스는 2006년 설립되어 2011년 코스닥 시장에 상장하였으며 (주)아이지스, (주)케어랩스를 종속회사로 두고 있다. 주요 사업으로 지능형 교통 시스템 및 CCTV 통합 관제 시스템과 도로 교통관리, 대중교통관리, 해상교통 및 항공 관제 시스템 등을 포함하는 스마트 시티 구축 사업이 있다. 신규 사업으로 ICT 사업 분야(AI, BigData, Blockchain, IoT 등)와 제주도, 전기차 충전 기업 등과 함께 전기차 충전 및 V2G 플랫폼 개발을 진행하는 전기차 충전 분야가 있다.

대영채비는 1988년 설립되어 전기차 충전기 제조, 설비, 유지보수, 충전 서비스 운영까지 원스탑 토탈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모바일 충전기, 벽걸이 충전기, 스탠드 충전기 등 다양한 형태의 충전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또한 운영하고 있다. 대영채비는 2017년 글로벌 충전 표준을 관장하는 국제전기차충전기협회(CharIN, Charging Interface Initiative e.V.)의 코어멤버로 등록된 바 있다.

[표 5] 동사의 주요 경쟁사 현황

기업	매출액	주요 제품
 [동사] 코스닥 상장사 1986년 02월 04일 설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K-IFRS, 별도기준 '20년: 847.2억 원(▲10.01%) '19년: 762.4억 원(▲83.50%)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로 요금징수 시스템 지능형 교통 시스템(ITS) 철도 신호 및 통신 시스템 전기차 충전 인프라
 [시티랩스] 코스닥 상장사 2006년 03월 02일 설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K-IFRS, 별도기준 '20년: 204.9억 원(▲7.27%) '19년: 191.0억 원(▼13.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능형 교통 시스템(ITS) 스마트 시티 CCTV 통합 관제 시스템 전기차 충전 및 V2G 플랫폼
 [대영채비] 외감기업 2016년 05월 26일 설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KGAAP, 별도기준 '20년: 375.7억 원(▲48.25%) '19년: 253.4억 원(▲8.04%)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홈 충전기 완속 충전기 중속 충전기 급속 충전기

*출처: 각 사 홈페이지, 공시자료(2020), NICE디앤비 재구성

[그림 9] SWOT 분석



■ 동사의 ESG 활동



동사는 환경(E) 부문에서 ISO14001(환경경영시스템)을 바탕으로 환경경영을 실천하고 있다. 동사는 탄소제로를 위한 전기차 충전 인프라 사업을 통해 기후 변화에 대응하고 있다. 또한, 동사가 제공하는 제품 및 서비스의 설계, 개발, 생산, 폐기에 이르는 과정에 환경요소를 고려하고 있으며 국내외 환경 법규의 요구사항을 준수하여 환경 관련 법상의 행정상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다.

동사는 사회(S) 부문에서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위하여 매년 전 직원을 대상으로 산업안전 교육을 시행하고 있으며, 성희롱 및 직장 내 괴롭힘 방지 교육을 통해 근로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있다. 동사는 임직원의 여가활동을 위해 사내 동호회 및 체육 시설을 지원하며, 자녀 학자금과 각종 경조사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통신비 지원, 의료비(배우자, 자녀 포함) 지원, 사외 교육활동 지원 등의 복리후생제도를 운영하여 임직원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돕고 있다.

동사의 분기보고서(2021.09)에 의하면 동사의 여성 근로자의 비율은 약 11.1%로 동 산업(J, 정보통신업)의 여성 근로자 비율인 30.4% 이하이다. 하지만, 동사의 여성 근로자의 임금 수준은 72.6%로 동 산업 평균인 72.8%와 유사한 수준이며 남성대비 여성 근로자의 근속연수는 74.2%로 동 산업 평균 67.5%에 상회하여, 성별에 따른 고용 평등을 일정 수준 실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표 6] 동사 근로자 성별에 따른 근속연수 및 급여액

(단위: 명, 년, 천 원)

성별	직원 수(전체)		평균근속연수		1인당 연평균 급여액	
	동사	동 산업	동사	동 산업	동사	동 산업
남	176	331,629	3.1	7.7	48,205	59,616
여	22	144,558	2.3	5.2	35,000	43,416
합계	198	476,187	-	-	-	-

*출처: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보고서 (2021.02),
동사 분기보고서(2021.09), NICE디앤비 재구성



동사는 지배구조(G) 부문에서 개인보호 정책과 정보보안 정책을 보유하고 수행하고 있으며 상장기업으로서 공시의무를 준수하고 있다. 동사의 분기보고서(2021.09)에 의하면 동사의 이사회는 사내이사 2인, 사외이사 1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특수관계인이 아닌 상근 감사를 보유하고 있다. 동사의 감사는 회계분야의 전문성을 갖추고 있으며 감사지원 조직을 구성하여 주주총회, 이사회 등의 경영전반에 관한 감사업무를 지원하고 있다. 동사는 주주의결권 지원제도로 전자투표제를 도입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주주환원을 위해 무상증자를 시행하였으며 신주의 상장일은 2022년 1월이다.

[표 7] 동사의 지배구조

(단위: 명, %)

이사회		감사		주주	
의장, 대표이사의 분리	-	회계 전문성	○	최대주주 지분율	23.90
사내/사외	2/1	특수관계인	-	소액주주 지분율	78.30
사외이사 재직기간	6년 미만	내부통제 제도	○	3년 이내 배당	-
내부위원회	-	감사 지원조직	○	의결권 지원제도	○

*출처: 동사 분기보고서(2021.09), NICE디앤비 재구성

II. 재무분석

‘19년~’20년 매출 외형 회복 및 성장세, ‘21년 실적 증가세 지속

지연된 도로 사업 기성 증가, TCS 등 주력 제품의 납품 호조 등으로 최근 2개년간 매출 외형이 회복 및 성장을 보였으며, 기수주한 프로젝트들의 완료 및 매출 반영 본격화 등에 힘입어 2021년 3/4 분기까지 외형 성장을 지속하고 있다.

■ 도로 요금징수시스템 매출 부문이 매년 동사 외형 성장 견인

동사는 2021년 3분기 공시 기준 ‘톨게이트에서의 통행요금 징수방법 및 그 장치’를 포함하여 47건에 달하는 특허 등 풍부한 산업 재산권 및 전문인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도로 교통시설에 전자·정보 및 통신 등 첨단기술을 접목하여 교통체계의 운영 및 관리를 과학화·자동화하는 도로교통 솔루션을 공급하고 있다. 주력 제품으로 유인/무인 요금징수 시스템 TCS, ETCS 등을 갖추고 있고, 그 외, 전기차 충전 인프라 사업과 공항 ICT 사업 등의 신규 사업을 추진 중이다. 동사의 2020년 별도 실적 기준 유형별 매출 비중은 도로 77.0%(요금징수시스템 48.8%, ITS 등 28.2%), 철도 23.0%(신호 4.2%, 통신 4.2%, AFC 등 14.6%)로 나타나며, 최근 3개년간 국내 도로 요금징수시스템(TCS 외) 부문이 총매출의 40%~50% 내외를 나타내고 있어 요금징수시스템 부문이 동사 외형 성장을 견인하고 있다.

■ 2020년 SOC 발주 호조로 인한 TCS 등 주력 제품 납품 증가 등으로 외형 성장

동사는 1994년부터 거래 관계를 지속 중인 한국도로공사를 포함하여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서울북부고속도로, 삼성물산, 롯데정보통신 등 인프라 관련 공공기관 및 민간 대기업을 주요 매출 거래처로 두고 있다. 공공부문의 사업발주 지연, 광명서울/이천오산 고속도로의 착공지연으로 인한 도로 부문 기성실적 축소 등으로 2018년 47.4%의 매출액감소율을 기록하였으나, 이후 지연된 도로 부문 기성률 증가, 국내 유료 도로 증가에 따른 TCS 등 주력 제품의 납품 증가 등에 힘입어 2019년 796.7억 원(95.9%, YoY), 2020년 921.3억 원(15.6%, YoY)의 매출액을 기록하는 등 최근 2개년간 외형 회복 및 성장을 나타냈다.

한편, 2021년 3/4분기까지 누적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111.6%로 크게 증가한 813.7억 원을 기록하며 외형 성장세를 지속하는 모습이다. 이는 2분기에 완료한 서울 제물포터널 ITS 구축 사업 및 미국 워싱턴 D.C 역무자동화설비(AFC) 구축 관련 실적 반영 등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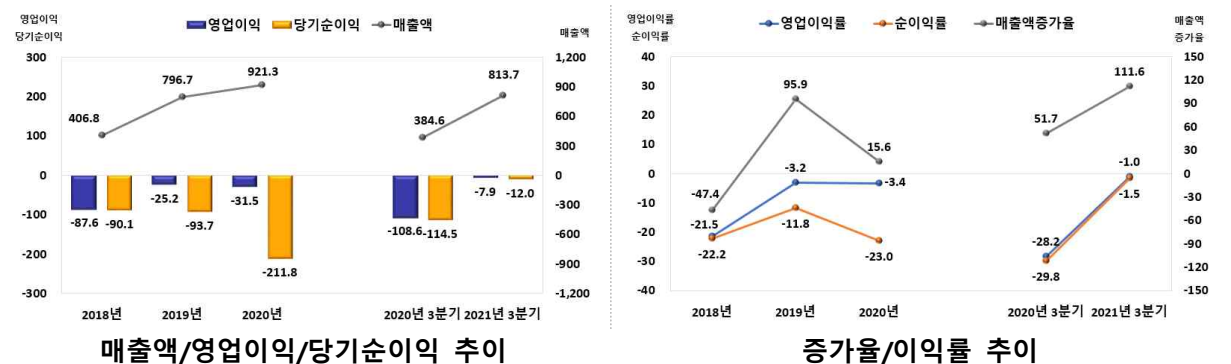
■ 높은 고정성 경비 부담으로 최근 3개년간 적자, 2021년 3분기 수익구조 취약

공사 수행 시 투여되는 원가가 매출 대비 높은 편으로 최근 3개년간 매출원가율이 85%를 상회하는 가운데, 같은 기간 R&D 투자를 위한 인력 충원 지속으로 인한 인건비 증가 등으로 적자 기조를 지속하였다. 한편, 2020년의 경우, 전년 대비 매출 실적 호조에도 불구하고, 대형 해외 프로젝트 기반 구축을 위한 초기 투자 비용 증가 등으로 31.5억 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하였다. 또한, 자회사인 서울신교통카드(주)의 영업 부진으로 인한 무형자산손상차손(118.0억 원) 등의 영향으로 211.8억 원의 순손실을 기록하는 등 전년 대비 열위한 수익성 수치를 기록하였다.

2021년 3/4분기 누적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한 가운데, 급여 등 여전히 과다한 영업비용 부담으로 7.9억 원의 분기영업손실, 12.0억 원의 분기순손실을 기록하는 등 저조한 수익성을 지속하였다. 다만, 3분기 매출액영업이익률과 매출액순이익률은 각각 -1.0%, -1.5%로 손실 폭은 크게 축소하였다.

[그림 10] 동사 연간 및 3분기(누적) 요약 포괄손익계산서 분석

(단위: 억 원, %, K-IFRS 연결기준)



*출처: 동사 사업보고서(2020.12), 동사 분기보고서(2021.09), NICE디앤비 재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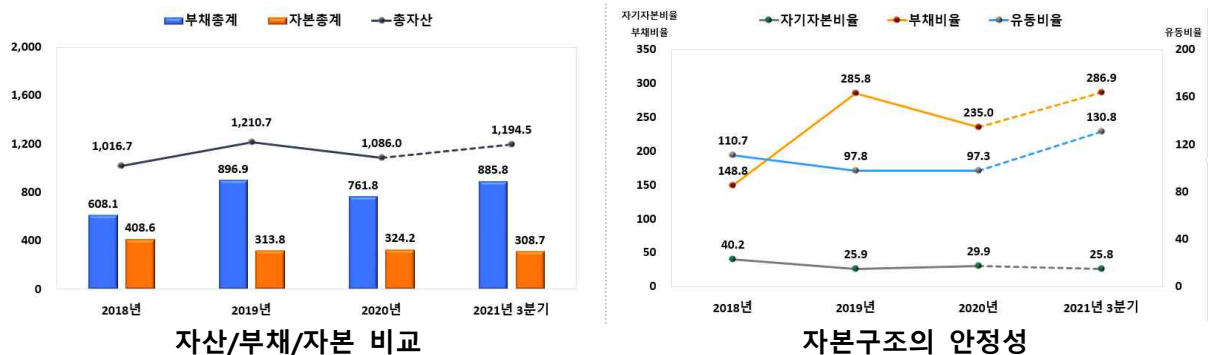
■ 순손실 지속과 비전 2025 달성을 위한 사채 조달 등으로 재무구조 열위한 수준이나, 차입금의존도는 20% 초반으로 업계 평균 수준

2020년 순손실에도 불구하고 유상증자 실시로 인한 자기자본 증가 및 일부 사채 상환 등에 따른 부채 감소로 부채비율이 전년 기말 285.8%에서 235.0%로 하락하는 등 주요 재무안정성 지표의 개선이 있었으나, 여전히 열위한 수준에 머물렀다. 또한, 전기차 충전기 사업 등 비전 2025 달성을 위해 소요되는 자금을 매년 전환사채를 통해 조달하고 유상증자를 통해 유입된 자금으로 사채를 상환하는 등의 재무전략을 수행하고 있어 단기 내 큰 폭의 재무안정성 개선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편, 2020년 기말 차입금의존도는 22.7% [차입금 247.0억 원(리스부채 9.3억원 포함)]로 걱정한 수준이며, 기말 현금 169.6억 원 및 담보 제공 가능한 유형자산 144.8억 원 등을 고려할 시 차입금 리스크가 높은 편은 아닌 것으로 분석된다.

이후, 2021년 3분기 말 기준 부채비율 286.9%, 자기자본비율 25.8%를 기록하는 등 사채 발행 등으로 인한 부채부담 증가로 주요 재무안정성 지표는 전년 말 대비 소폭 저하되었다. 다만, 매입채무를 포함한 유동부채 감소 등으로 유동비율은 130.8%를 기록하며 전년 말 (97.3%) 대비 다소 개선된 모습을 보였다.

[그림 11] 동사 연간 및 3분기(누적) 요약 재무상태표 분석

(단위: 억 원, %, K-IFRS 연결기준)



*출처: 동사 사업보고서(2020.12), 동사 분기보고서(2021.09), NICE디앤비 재구성

■ 기타 이슈

동사는 2021년 10월 14일 이사회를 열고 유상증자를 결정했다. 주식수는 2,800,000주이며 확정 발행가액은 4,270원으로 모집총액은 119.6억원이다. 이후, 2021년 12월 21일 유상증자 청약결과를 공시하였고, 청약주식수는 2,851,275주, 청약률은 101.83%로 목표치를 달성한 것으로 확인된다. 한편, 유상증자를 통해 유입되는 자금은 시설자금(약 117억 원), 기타자금(약 3억 원)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동사는 2021년 11월 17일 이사회를 열고, 신규시설 투자(사옥 신축)를 공시했다. 신규투자 소재지는 경기도 성남시 판교 제2테크노밸리 G1-1BL 획지이며, 소요금액은 약 159억 원이다. 사옥 신축을 통해 동사는 임차비용 절감 및 경영효율화, 임직원 근무 환경 개선, 벤처타운 조성 등의 목적을 달성할 것이란 입장이며, 투자금 조달은 상기 유상증자로 인해 유입되는 자금으로 주로 충당될 예정이다.

[표 8] 동사 연간 및 3분기(누적) 요약 재무제표

(단위: 억 원, K-IFRS 연결기준)

항목	2018년	2019년	2020년	2020년 3분기	2021년 3분기
매출액	406.8	796.7	921.3	384.6	813.7
매출액증가율(%)	-47.4	95.9	15.6	51.7	111.6
영업이익	-87.6	-25.2	-31.5	-108.6	-7.9
영업이익률(%)	-21.5	-3.2	-3.4	-28.2	-1.0
순이익	-90.1	-93.7	-211.8	-114.5	-12.0
순이익률(%)	-22.2	-11.8	-23.0	-29.8	-1.5
부채총계	608.1	896.9	761.8	818.9	885.8
자본총계	408.6	313.8	324.2	179.8	308.7
총자산	1,016.7	1,210.7	1,086.0	998.7	1,194.5
유동비율(%)	110.7	97.8	97.3	63.7	130.8
부채비율(%)	148.8	285.8	235.0	455.5	286.9
자기자본비율(%)	40.2	25.9	29.9	18.0	25.8
영업현금흐름	-96.2	74.6	25.9	12.4	-24.4
투자현금흐름	-230.3	61.8	-18.3	8.2	-30.6
재무현금흐름	60.5	-27.9	-9.9	-89.8	108.5
기말 현금	65.6	173.0	169.6	101.5	223.6

※ 분기: 누적 실적

*출처: 동사 사업보고서(2020.12), 동사 분기보고서(2021.09)



Ⅲ. 주요 변동사항 및 향후 전망

주력 사업인 도로/철도 SI 사업의 양호한 수주잔고 및 전기차 충전 시장 선점으로 중장기적인 외형 성장 및 수익성 개선 기대

COVID-19로 지연된 기수주 주요 프로젝트의 기성 재개, 전년 매출을 크게 상회하는 양호한 수주잔고를 바탕으로 외형 성장 및 수익성 개선이 예상되며, 전기차 충전기 인프라 지속 확충으로 통한 전기차 충전소 민간 사업자 1위 지위 유지로 향후 사업 전망은 긍정적이다.

■ 2021년 4/4분기 실적은 개선 전망

세종시 자율주행 빅데이터 관제센터 구축 등 기수주 사업 매출 반영, 인천공항 4단계 사업 등 사업 전 부문 수주 확보 등에 힘입어 2021년 3/4분기 누적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111.6%로 크게 증가하였고, 여전히 적자상태이나 영업이익률 -1.0%, 순이익률 -1.5%를 기록하며 전년 동기 대비 적자폭이 크게 감소하는 등 일부 수익성의 개선이 있었다.

동사 2021년 3/4분기 IR자료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의 도로/철도망 확충 계획 지속적으로 2021년 9월말 기준 1,581억원(도로 564억 원, 철도 528억 원, 글로벌 489억 원)의 수주잔고를 확보하는 등 양호한 대내외적 사업환경을 완비하고 있다. 또한, COVID-19로 인해 기성이 지연된 아제르바이잔 해외 프로젝트 재개 등으로 2022년 연간 실적 턴어라운드 기대된다.

■ 전기차 충전 플랫폼 SSCharger 사업 가속화

동사는 현재 주력 사업인 도로·철도 솔루션 외 전기차 충전 플랫폼 SSCharger를 런칭하였다. 멤버십 전용 앱인 EVRO로 이용자에게 보다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국내 최초로 구독형 충전 상품인 럭키페스를 도입하였다. 동사는 이마트, BGF리테일, 현대자동차 그룹과 협약하며 사업을 확장해 2021년 급속 충전기 시장 점유율 1위를 달성하고 소비자가 선택한 2021 최고의 브랜드(전기차 충전 서비스)에 선정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나타냈다.

동사는 기아자동차 충전 사업자로 선정된 것에 이어, 현대자동차 아이오닉 5 고객을 위한 멤버십 특화 서비스인 '아이오닉 디 유니크' 중 7kW·11kW 홈 충전기 공급 및 충전카드 공급 사업의 파트너로 선정되며, 국내 완성차 시장을 선도하는 현대자동차 그룹과 지속적인 협약으로 시장확대를 도모하고 있다.

■ 전기차 충전 인프라 투자자금을 위한 유상증자 시행, 최대주주 지배력 약화 우려

동사는 2021년 10월 신주(보통주) 280만 주를 발행하는 유상증자와 보통주 1주당 0.1주를 배정하는 무상증자를 결정했다. 이번 유상증자는 전기차 충전 인프라 투자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시행되었으며,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 방식으로 확정 발행가액은 4,270원으로 모집총액은 119.6억 원이다. 이후, 2021년 12월 21일 유상증자 청약결과를 공시하였고, 청약주식 수는 2,851,275주, 청약률은 101.83%로 목표치를 달성한 것으로 확인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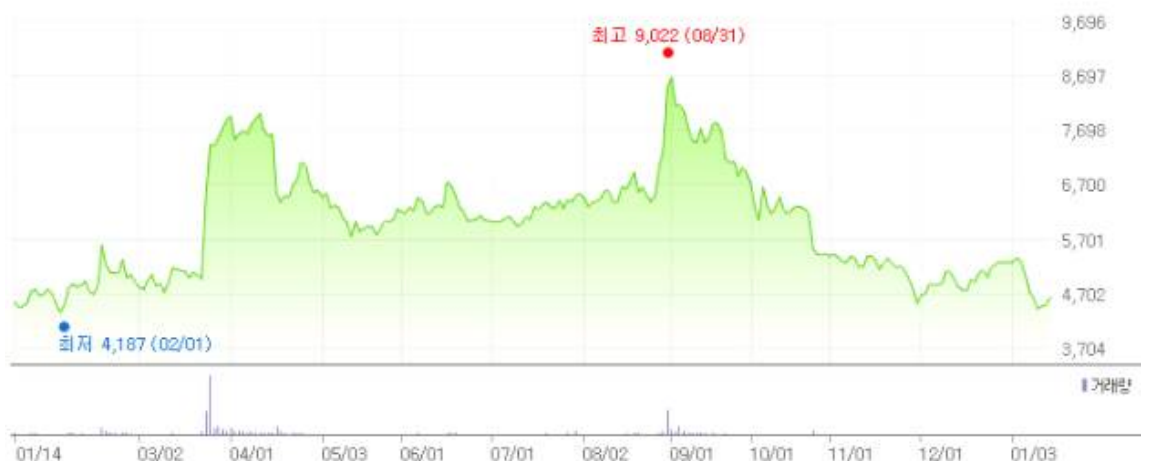
한편, 유상증자를 통한 증권 발행으로 최대주주의 지배력 약화에 의한 경영 안정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수관계인을 포함한 동사의 최대주주 지분율은 유상증자 전 23.9%에서 유상증자 이후 18.43%로 20% 아래로 떨어졌으며, 이에 적대적 인수합병 등 경영권 분쟁 가능성이 상존하여 경영 안정성이 우려된다.

■ 증권사 투자의견

작성기관	투자의견	목표주가	작성일
SK증권	Not Rated	—	2021.08.26
	<p>▶ 지능형 교통시스템/스마트 톨링/열차 신호 및 통신 등 교통 관련 SI 전문기업. 2Q21 매출액 362억 원(YoY+147.8%), 영업이익 40억 원(흑자전환) 기록. 올해 상반기 기준 초급속/급속/완속 충전기 총 1,328대 구축/운영 중</p> <p>▶ 대형 할인 마트, 아파트 단지 등 공동주택, 고속도로 휴게소 등 급/완속 충전소 구축. 완성차 업체와의 제휴 통해 전기차 구매 고객에게 충전포인트 제공 등 서비스 확대</p>		

■ 시장정보(주가 및 거래량)

[그림 12] 동사 1개년 주가 변동 현황



*출처: 네이버금융(2021년 01월 14일)